

1 일시인출 한도 70% → 90%

2 실거주요건 완화

3 보증상품 한도 ↑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한 주택연금 일시인출 한도가 70%에서 90%로 늘어난다. 이로 인해 노후를 준비하는 60세 이상 주택연금 가입 희망자는 대출금 상환과 주택연금 수령을 병행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서민 주거안정 및 실수요자 금융지원을 위한 주택연금과 보증상품 요건 개선에 관한 ‘한국주택금

주택연금, 받을 길 많아진다

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반 주택연금이 가입하기 위해선 주담대를 모두 갚아야 해 큰 목돈 없이는 어려웠다. 2016년 출시한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은 일시 인출 한도가 70%여서 주담대 비중이 큰 집에 사는 사람은 가입할 수 없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한 주담대 상환용 일시인출한도를 대출한도를 70%에서 90%로 확대한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나중에 금리가 오르더라도 대출상환 부담이 커지지 않고, 주택연금도 매달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주택연금의 일시인출한도는 대출한도의 70%로 제한되어 있어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큰 집을 소유한 노령층은 가입이 불가능했다.

아울러 주택연금 가입자의 실거주요건 완화된다. 현재는 주택연금 가입자는 가입주택에 실제 거주하면서 보증금 없는 월세만 수취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요양원 입소, 자녀방양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할 경우에는 집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더라도 연금이 유지되고, 유희공간은 임대주택 활용하도록 허용한다

이밖에도 주택금융공사 보증상품 한

도도 확대한다.

현재는 주금공의 전세보증을 이용 중인 경우 동일인 보증한도 제한이 3억원으로, 내집마련을 위한 중도금대출(보증)이 사실상 어려웠다.

이에 따라 주금공 보증상품 이용 기준을 인당한도 3억원에서 보증상품별 한도를 3억원으로 개편한다. 이로 인해 전세 보증이 3억원 있더라도 중도금대출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게 돼 전세거주자의 내집마련 기회가 확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주금공 내규를 개정할 후 연내 시행된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metroseoul.co.kr

정책브리핑



22만 톤급 크루즈 선박 'Allure of the Seas'. /해수부

해수부 부산항에 크루즈 부두 준공

부산 영도 동삼동에 22만 톤급 초대형 크루즈선이 머물 수 있는 크루즈 전용 부두가 들어선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추진해 왔던 부산 동삼동 크루즈 전용부두 확장공사를 마무리 짓고, 오는 20일 준공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22만 톤급 크루즈선은 최대 5000명까지 탑승할 수 있는 초대형 선박이다. 이번에 조성한 전용부두는 길이가 440m, 폭은 45m로 국내에서는 인천항에 이어 2번째로 생긴 초대형 크루즈선 전용부두이며 세계 최대 크루즈선도 충분히 정박할 수 있는 규모다. /세종=최신용 기자

내륙서 첫 여왕 붉은불개미 발견... 중국산 석재서 나와

대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나와 환경부, 합동대책·방제 총동맹

대구에서 '붉은불개미(Solenopsis invicta)'가 다시 발견돼 환경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17일 대구 북구 아파트 건설 현장 내 조경용 중국산 석재에서 붉은불개미 7마리를 발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것은 건설 현장 관계자가 붉은불개미 의심 개체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발견 및 신고해 검역본부에서 붉은불개미로 최종 확인한 것이다.

해당 중국산 석재는 부산 감만부두터미널에서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개장해 곧바로 아파트 건설 현장으로 이동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석재를 운반한 빈 컨테이너에 대해 현재 검역본부에서 최종



조경용 중국산 석재에서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대구 북구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환경 당국 관계자들이 18일 오전 합동조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치를 추적 중에 있다. 환경부, 검역본부 및 대구시는 관계부처 합동 대책 및 붉은불개미 예방·방제 매뉴얼에 따라 주변지역으로의 붉은불개미 확산을 막기 위해 발견지점과 주변

지역에 철저한 총동 대응을 실시했다. 발견지점에 대해 통제라인을 설치하고, 조경용 석재(120여개)에 대해서는 약제 살포 후 비닐로 밀봉 조치했다. 환경부·검역본부·대구시 직원 등이 긴급 투

입돼 주변지역에 대한 육안조사 등의 우선 조치를 실시했다.

한편, 이번 발견된 조경용 석재는 중국 광저우 황푸항에서 출발한 8대의 컨테이너에 적재된 것으로 이달 7일 부산 허치슨 부두에 입항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 검역본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9월 18일 전문가 합동조사를 통해 발견지와 그 주변 지역에 대한 붉은불개미 추가 존재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환경부, 지자체 등은 전문가 자문을 거쳐 구체적인 방제 방법 및 범위를 결정해 방제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검역본부는 식물검역대상이 아닌 조경용 석재에서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만큼 중국에서 수입되는 조경용 석재에 대해서는 수입실태를 파악해 붉은불개미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우리나라 친환경농가 6만호 미만 친환경 농산물 10년 전으로 '퇴보'

세계적으로 친환경 농산물 시장이 급성장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친환경 농산물 생산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산 농산물의 활로로 기대된 친환경 농산물 시장마저도 외국산에 의해 점령되는 것이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18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 '2018 국내의 친환경 농산물 시장 현황과 과제'에 따르면 지난해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수는 전년보다 2500호 줄어든 5만 9400호였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중 유기농산물 인증농가는 1만 3400호로 전년보다 500호 늘었지만 무농약 농산물 인증농가가 4만 6000호로 전년보다 3000호 줄어들면서 6만호 선이 무너졌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는 2012년 10만 7000호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급감해 2008년 5만 3500호 이후 처음으로 6만호에 못 미쳤다.

인증면적은 8만 100ha로 전년보다 0.8% 증가했으나, 최고치를 기록한 2012년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했다.

출하량 역시 전년보다 13.1% 줄어들어 49만 6400톤에 그쳤다. 품목별로는 전체 출하량의 60%를 넘

는 곡류와 채소류의 출하량이 전년보다 각각 28%, 4.8% 줄어들었다.

지역별로는 강원, 경기, 전남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인증면적이 감소한 가운데 충남(13.4% ↓)의 감소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 충북(10.2% ↓), 전북(7.6% ↓)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내 친환경 농산물 시장 규모는 전년보다 7.2% 줄어든 1조 3608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친환경 농산물 시장 규모는 2012~2015년 연평균 7% 감소하다 2016년 회복세를 보였으나 다시 감소했다.

이는 2016년 세계 유기농 식품·음료 시장 규모가 897억 달러로 전년보다 10% 증가하는 등 꾸준히 성장하는 추세와 대비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2016년 국내 유기식품 수입량과 수입액은 각각 4만 6000톤, 1억 2940만 달러로 전년보다 15%, 24.5% 증가했다.

이를 위해 농촌경제연구원은 "지역별 특성을 살린 친환경 농산물 확대 전략과 함께 체계적 연구개발이 필요하다"며 "가격 인하와 소비자 신뢰회복, 판로 확대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 소비를 촉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강원도 춘천의 한 복숭아 농가. 올 여름 폭염으로 당도는 높지만 모양이 고르지 못한 복숭아 생산이 크게 늘었다. 과일은 맛만큼 겉모양도 중요하더라 시름은 깊어만 갔다. 그러던 중 시장에 유통하기 어려운 복숭아를 상품화하고 싶다는 색다른 제안에 흔쾌히 응했다. 얼마 후, 복숭아들은 상큼한 맛과 향이 가득한 '수제 맥주'로 다시 태어났다.

우리 품종 복숭아의 색다른 상품화로 농가의 부가까지 창출이 기대된다.

농촌진흥청은 서울의 유명 수제 맥주 양조장과 이혜림 푸드 칼럼니스트와 손을 잡고 복숭아 '하홍' 품종의 풍부한 향과 맛을 담은 수제(크래프트) 맥주를 20일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당도가 높으면서 신맛이 나 새콤달콤한 '하홍'은 농진청에서 개발한 천도 품종이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이날 선보일 맥주는 세계적으로도 인기가 많은 '팜하우스 에일'(Farmhouse Ale)의 한 종류로 맥주에 입힌 은은한 복숭아 향이 인상적이다.

8월 중순 양조해 발효를 마친 뒤 복숭아 '하홍'을 넣고 숙성될 때까지 3주가량 더 두면 완성이다.

후숙한 맥주는 진한 과일 향과 달콤한 과즙의 풍미를 즐길 수 있어 가공적성이 매우 뛰어나다.

이 수제 맥주는 출시 후 소량만 한정 판매한다. 관련 문의는 농진청 과수와(063-238-6733)로 하면 된다.

이번 프로젝트를 총괄한 이혜림 푸드 칼럼니스트는 "새로운 향이 매력적인 '하홍' 품종으로 만든 수제 맥주는 복숭아 향이 진하며 단맛과 신맛의 조화가 우수해 맥주 마니아뿐 아니라 누구나 부담 없이 가볍게 마시기 좋은 맥주다."라고 평가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노사발전재단 미얀마 노정대표단 교류

노사발전재단은 미얀마와 고용노동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얀마 노정 대표단 초청교류' 프로그램을 이달 18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미얀마 노동이주주 민부(Ministry of Labour, Immigration and Population) 소속 공무원 2명과 노총(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of Myanmar) 소속 간부 2명 등 4명을 초청하여 진행한다.

미얀마 대표단은 재단에서 진행되는 '한국의 노사관계 이해' 강의 청취를 시작으로,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경총,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한국잡월드, 전국섬유유류노동조합연맹 등 총 7개의 고용노동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발전 경험을 전수 받는다. /세종=최신용 기자

산업부 인도 규제동향 공유·협의

우리 수출기업의 인도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정부가 인도 규제당국 관계자를 국내로 초청, 인도의 규제동향을 공유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협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8일 인도 표준국 인증담당자와 우리 수출업계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도 무역기술장벽(TBT) 대응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인도표준국(BIS, Bureau of Indian Standards)은 인도의 소비·식품·유통부 산하의 표준인증대표기구로서 표준, 기술규정, 시험검사 및 인증 등을 총괄 담당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 참가한 수출기업 관계자들은 구체적인 인도의 규제정보에 대해 활발하게 질문하는 한편, 불명확한 규제지침 또는 과도한 인증 소요기간 등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 /세종=최신용 기자